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산책과 수집을 통해 발견된
일상 속 장소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정 민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명섭

산책과 수집을 통해 발견된
일상 속 장소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place in a daily routine, which is found by strolling and
collection : Primarily based on the author's art works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정 민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명섭

산책과 수집을 통해 발견된
일상 속 장소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place in a daily routine, which is found by strolling and
collection : Primarily based on the author's art works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정 민 희

정민희의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정 현 이 인

심 사 위 원 _____ 이 인 현 인

심 사 위 원 _____ 홍 명 섭 인

국 문 초 록

산책과 수집을 통해 발견된 일상 속 장소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정 민 회

본 논문에서 본인은 2012년-2014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은 일상적인 장소가 순간적으로 낯설게 다가오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진행하였기에 일상적이었던 장소가 낯설어지는 계기가 되는 순간의 장소들 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해도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낯설지 않은 환경들을 마주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소비구조 안에서 장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마주치게 되는 장소들은 낯설지만 익숙한 장소들이다. 낯선 도시에서 낯설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은 곧 다시 일상이 된다. 다시 일상이 된 장소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보이는 작은 사건들은 본인의 작품의 계기가 된다.

2장에서는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가 말하는 일상성과 현대성 그리고 사회적인 공간이 된 장소에 대한 사상을 탐구하고 그러한 일상적 장소들이 본인의 작품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해 본다.

3장에서는 작업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본인은 일상 속의 사건을 발견하여 작업을 전개하는데, 그 방식은 ‘산책하기’와 ‘수집하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상 속 사건을 발견하게 된 방법 중 하나인 ‘산책하기’

를 독일의 문예 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이 개념화시킨 ‘산책자’라는 개념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와의 관계망 속에서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지, 본인의 작품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상 즉 날마다 반복되는 사회 속에서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풀어가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주요어】 일상성, 장소, 산책하기, 수집하기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논리적 배경	4
2.1 일상	4
2.2 일상의 소외	5
2.3 도시의 공간	7
III. 방법론적 배경	9
3.1 산책하기	10
3.2 수집하기	11
IV. 작품 표현 및 분석	12
4.1 영역	12
4.1.1 사적인 영역	12
4.1.2 구분되지 않은 영역	13
4.2 존재하지 않는 장소	21
4.3 욕망의 장소	28
4.3.1 전단지	28
4.3.2 임대문의	32

4.3.3 이동하는 장소	36
V. 결 론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5



작 품 목 차

<작품 1 > Territory, C-프린트, 가변크기 8개, 2012	17
<작품 2 > 텐트, 모기장 텐트, 200x120x140cm, 2013	18
<작품 3 > 파라솔, 파라솔, 철, 40x155x190cm, 2014	19
<작품 4 > 칼라콘(청), 칼라콘6개, 접이식매대6개, 가변설치, 2014 ..	20
<작품 5 > 칼라콘(흰), 칼라콘6개, 접이식매대6개, 가변설치, 2014 ..	20
<작품 6 > The Vinyl, single channel video, color, 3min10sec, 2012	23
<작품 7 > The second Vinyl, single channel video, color, 2012	24
<작품 8 > candlelight, single channel video, color, 2012	25
<작품 9 > preschool, single channel video, sound, color, 2min5sec, 2012	26
<작품 10> blue boundary C프린트, 가변크기, 2013	27
<작품 11> same time, same space, 아트지에 인쇄, 29.7x21cm, 2013	30
<작품 12> same time, same space. single channel video, sound, color, 25min55sec, 2013	31
<작품 13> 카페트, 카페트, 침핀, 150x150cm, 2013	39
<작품 14> 403호, 피그먼트 프린트, 86.8x61.8cm, 2014	40
<작품 15> 303호, 피그먼트 프린트, 86.8x61.8cm, 2014	40
<작품 16> 어떤 장소(화장실), 종이에 인쇄, 10.5x14.8cm, 2014	41

도 판 목 차

<도판 1> 서울시 은평구 전단지	30
<도판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전단지	30
<도판 3> <임대문의 프로젝트> 지도(은평구 응암동~홍제동)	32
<도판 4> <임대문의 프로젝트> 임대문의 수집 사진	33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업의 계기는 결국 일상적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주하는 장소, 낯설지 않은 장소, 자주 머무르게 되는 장소들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업은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 본인이 새롭게 발견한 장소들이다.

일상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모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본인 역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흐름으로 살아간다. 현재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일상이다. 이러한 삶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발생한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이 체제는 이미 15, 16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체제가 한 시대의 지배적 생산 양식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¹⁾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지금 본인이 격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

는 이것을 ‘소비의 사회’라 지칭하였다.²⁾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일상은 소비의 사회인 것이다.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작업적 배경으로 풀어가하고자 하는 것 역시 ‘소비의 사회’라 불리는 일상적 장소이다. 소비사회에 상응하는 이론과 함께 ‘소비의 사회’라는 명칭은 1950, 1960년 이래 널리 유포되었다. 르페브르는 이 시기에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물질적 문화적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현상들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내구 소비재’(자동차, TV등)는 새롭고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는 수치와 함

1)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2) 소비사회(consumption communities, 消費社會).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게 제시했다.”³⁾ 본 논문에서 얘기되는 일상은 르페브르가 얘기한 자본주의적 소비의 사회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 작품 활동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장소의 변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⁴⁾의 ‘일상성’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동안 본인이 ‘일상’이라고 지칭했던 것들에 대해 해석해 본다. 현재 삶 속에서 일상이란 무엇인지 사유해 보고 이러한 일상 속에서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져 나가는지에 살펴보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장소는 어떻게 읽히고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러한 장소들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르페브르가 이야기하는 ‘일상성’과 본인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일상’과 일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장소’와 그 ‘공간’에 대해서도 구분 지어 보고자 한다. 일상성은 하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일상을 다루는 것은 그 사회의 성격을 정의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을 전체 속에, 즉 국가, 기술, 기술성, 문화(또는 문화의 해체) 속에 위치시킴으로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⁵⁾ 본인이 사회화 관계를 맺고 작가로서 살아가는데 일상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지점이다.

또한 3장에서는 이러한 일상 속의 사건들을 발견하게 되는 방식으로 독일의 문예 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개념화 시킨 ‘산책자’와 같은 방식인 ‘산책하기’라는 방법과,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의 개념의 사상을 통해 ‘수집하기’ 즉 ‘소비하기’라는 방법으로 풀어낸 사회와의 관계망에 대해 전개하고자 한

3) 앙리 르페브르.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 기파랑, p.123.

4)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vre, 1901-1991년, 프랑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사회 학자이다. 초기에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말년에는 고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들에 주목하여 일상성의 문제, 도시 문제, 인공지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5) 앙리 르페브르. (2005). 전계서, p.85.

다.

4장에서는 관계 맺어져 있는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고 나가는지에 대해 전개한다. 일상 속에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이 작업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는 과정으로 사회와의 관계와 정체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공적인 영역 속에서 순간적으로 사적인 영역을 만들어 내는 텐트와, 현대인들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전단지들의 발견, 그리고 비어있는 건물이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풀어나감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본인의 위치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구조의 일상 속에서 발견했던 사건들 예를 들어 산업사회가 나타난 후 생긴 사적 영역 그리고 자본과 소비의 가장 큰 욕망인 ‘집’이라는 문제와 그 욕망의 발견, 결국 이러한 일상, 자본과 소비의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본인은 일상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것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어떠한 관계로 나타나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II. 논리적 배경

2.1 일상

우리는 항상 일상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일상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19세기 자본주의가 정착된 데 이어서 상업경제와 화폐경제가 일반화된 이후의 일상이다.⁶⁾ 일상 속에서 자본과 소비는 우리의 도처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상성을 학문의 개념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⁷⁾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회학적으로 ‘일상성(quotodienneite)’을 개념화 시킨 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성을 학문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고,⁸⁾ 일상생활에서 비판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기호학으로만 해석하려는 건조한 시도에 반대하였는데 “공간은 읽혀지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생명이 있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⁹⁾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상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매일매일 같은 삶의 반복을 우리는 흔하게 일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와 장소 그리고 주변인 것이다.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은 어떤 작은 사건조차 일어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건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적나라한 ‘삶’인 것이다.¹⁰⁾ 일상적인 것들을 세밀하

6) 앙리 르페브르. (2005). 전제서, p.86.

7)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년, 독일) 하이데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이성 일변도로 치닫던 서구의 전통 철학을 뒤엎는 20세기 사상계의 거장이며, 현대 철학 및 문학, 예술론, 언어학, 인간학, 생태학 등 정신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철학자이다. 그는 인간 삶의 원초적 세계는 욕망과 지성에 의해 물든 소유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무구한 세계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네이버)

8) 일상성. 문학비평용어사전. 네이버 사전. www.naver.com

9) 이지희. (2009).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에 대한 담론적 연구-196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p.8.

10) 미셸 마페졸리·앙리 르페브르. (2010).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고영삼 외 1명 역.

게 관찰하다 보면 현재 본인이 속한 사회적 위치와 그 흐름을 읽어 낼 수 있다. 개인의 일상은 결국 사회의 흐름인 것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의 일상 생활은 중요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철학적 분석 또한 필요하다. 앙리 르페브르의 말처럼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는 일상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¹¹⁾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일상 읽기를 통해 현대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2.2 일상의 소외

앙리 르페브르는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도시 및 지역 생활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자본의 국제적 흐름과 사회공간의 문제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을 일상생활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일상생활이 근대화되고, 경제가 산업화되며, 도시가 교외화되는 변화들을 체험하였으며, 프랑스 소농들이 향유하던 전통적인 농촌적 삶이 급속히 파괴되는 현상들을 지켜보아야했다. 이런 상황이 르페브르로 하여금 소외 문제에 천착토록 했고, 또한 마르크스와 헤겔의 철학과 사회비판 이론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¹²⁾ 그는 특히 일상의 소외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에게 있어 소외는 소비주의의 신비화¹³⁾, 그리고 문화유산 및 관광의 산업화에 의해 파리가 신비화됨으로써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무언가 였다.”¹⁴⁾ 도시의 기술문명의 발전과 소비로 인한 차별은 소외를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의 양상을 비판하고, 그 원인을 추출하여 그 양상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서울: 한울아카데미, p.24.

11) 앙리 르페브르. (2005). 전개서, p.15.

12) 로브 쉴즈·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제 14호, p.10-11.

13) 자본의 신비화. 자본의 신비화란 일반적으로 자본의 본질이 사회적 관계들(자본·임금노동 관계)을 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들이 물상(Sache) 그 자체의 속성들로 전화하여 사물의 내적 관련이나 본질을 은폐해버리는 사태를 가리킨다. 그런 까닭에 자본의 신비화 과정은 물화 과정과 축을 같이한다. (네이버, www.naver.com, 맑스사전)

14) 로브 쉴즈·조명래. 전개논문, p.12.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¹⁵⁾ 하였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의 철학적 관념론이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인 생산과 현실의 삶을 신비화한 해석이라고 규정”¹⁶⁾ 하였다.

하이데거는 일상성을 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 보고 현상학적,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르페브르는 맑스적 분석을 확장하였는데, “그는 자본주의가 착취적인 생산관계로 조직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소외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국면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탈각시키는 가운데 ‘환영적인 상품’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유포시킨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르페브르는 “적극적인 주체적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 폭로(revelation), 감정적 명확화(emotional clarity), 자기출현(self-presence)의 ‘계기(moments)’를 포착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제안하고 있다.”¹⁸⁾ “여기서 계기란 개념은 탈소외(dis-alienation)의 실례가 된다. 계기는 지속적이지 않고 이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쉽사리 전유(혹은 착취)되거나 상품화될 수 없으며, 또한 기호화될 수 없다고 르페브르는 주장한다.”¹⁹⁾

르페브르가 말하는 소외의 해결책인 ‘계기’는 본인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주체적이길 소망하는 해결책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일상생활의 미시사적인 관점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사회적 문제 현상과 연결한다. 또한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축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축제는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일상과의 단절의 순간은 다시 혁명으로 얘기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품으로 둘러싸인 소비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축제는 르페브르가 얘기하는 일상과의 단절이라는 의미의 축제가 아닌 소비사회의 연속성에 처해있는 축제·여가이다. 그리하여 축제는 더 이상 일상을 변모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일상은 축제의 쇠퇴를 얘기한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쇠퇴를

15) 소외-마르크스 『경제학철학수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16) 장세룡. (2005)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문화이론적 접근-』.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25권, p.284.

17) 로브 쉘즈·조명례. 전개논문, p.13.

18) 로브 쉘즈·조명례. 전개논문, p.14.

19) 로브 쉘즈·조명례. 전개논문, p.14.

얘기하는 축제가 아닌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제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중심이 되어버린 도시에 대한 분석으로 “모든 사람은 ‘도시에 대해 권리(a right to the city)’를 갖는다.”²⁰⁾라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도시공간 속에서 보이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양자 간의 “상호작용(즉,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요인과 도시공간에서의 주체적 접근과 참여 간의 관계)은 단순히 도시의 스펙터클 경관에 관한 것이나 소비주체들의 소비행위(shopping)에 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개인이 사회집단들과 결연적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실현의 사회적 양식’이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르페브르는 주장하였다.”²¹⁾

2.3 도시의 공간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공간은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domain)으로 조직되고 규칙화된다. 생산 공간과 소비 공간의 분화, 고소득 주거지와 저소득 주거지로의 분화, 중심지와 주변지의 분화, 개발 공간과 보전 공간으로 분화, 분양주택 단지와 임대주택 단지의 분화, 고급문화지구와 대중문화지구의 분화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 혹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공간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²²⁾ 자본은 거대한 자연의 공간도 상품화 시키며 미시적인 개인의 공간까지 상품의 기호에 반응하도록 한다. 이에 르페브르는 공간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일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생동적인 체험(lived experiences)의 의미의 이해를 탐구하고자 했다.²³⁾ 공간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적·사회적·역사적인 것 모두를 연결한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간, 대륙, 우주 등의 발견과, 각각의 사회에 고유한 공간적 조직, 창조, 풍

20) 로브 쉘즈·조명래. 전개논문, p.17.

21) 로브 쉘즈·조명래. 전개논문, p.17.

22)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개념, 쟁점과 대안』.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p.30.

23) 로브 쉘즈·조명래. 전개논문, p.19.

경, 기념물 성과 장식을 겸비한 도시 등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연결된다.²⁴⁾ 이러한 공간 중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진 실존적 삶의 공간이 실현되는 공간을 ‘생동 공간(lived space)’이라 말한다. 이 생동 공간은 사람들의 상상 혹은 예술과 문학을 통해 살아 있고, 또한 접근되는 공간이다.²⁵⁾

르페브르는 제도화된 공간의 권력에 대한 대안적인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으로 다다(Dada)²⁶⁾나 초현실주의²⁷⁾자들의 작품과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을 대안적인 공간화에 관한 예술·문학 비판·판타지(fantasy)의 실례로 자주 인용하곤 하였다. 그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대안적 공간을 ‘완전히 생동적이고(fully lived)’ 전(前) 의식적이며 진정한(authentic) 요소라고 생각하였다.²⁸⁾

공간은 우리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공간과 사회는 서로 상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일상 또한 공간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세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어 내고 또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도시적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분방한 삶을 보장해주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은 도시 공간의 배열 방식과 규정 방식에 맞춘, 즉 공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삶을 살아간다.”²⁹⁾ 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의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24) 앙리 르페브르, (2011). 『공간의 생산』. 양연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 p.29.

25) 로브 쉘즈·조명래. 전개논문, p.18~20.

26) 다다(Dada). 1915~1922년경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문명, 반합리적인 예술운동. 제 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전통적인 서구 문명을 부정하고 기성의 모든 사회적, 도덕적 속박에서 정신을 해방하여 개인의 진정한 근원적 욕구에 충실하고자 했다. (네이버, www.naver.com. 세계미술용어사전)

27) 초현실주의. 제 1차 세계 대전 뒤에, 다다이즘의 격렬한 파괴 운동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예술 운동. 인간을 이성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파괴와 창조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최고점’을 얻으려고 하였다.

28) 로브 쉘즈·조명래. 전개논문, p.21.

29) 조명래. 전개서, p.21~22.

Ⅲ. 방법론적 배경

“어디 출신이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누군가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두 가지 요소다. 장소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장소는 그에 따른 물리적, 역사적, 문화적 속성과 함께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보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지리적 이력은 분명 작품의 외양과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³⁰⁾

우리는 구조적으로 닫혀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자학적인 단어들이 ‘88만 원 세대’, ‘루저’, ‘잉여 인간’, ‘삼포 세대’라는 말들로 담론화되어 가고 있으며, 잘 살고 자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점점 커져 우리들의 삶은 불안하게만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신자유주의의 담론에서 벗어나 돈이나 경제적 성취가 아닌 인문학적인 가치들, 각각의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³¹⁾ 본인은 이런 미시사적인 가치들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이 구조적인 사회 체제의 바깥에서 개인이 다른 시간과 삶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작업을 한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와 일상성을 연계선상에 두고 연구하였다. 현대의 세상에서 일상과 자본은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선상에 놓여있다. 소비 역시 그러하다.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소비는 현대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³²⁾ 일상을 산책하는 행위를 통해서 도처에 깔린 자본과 소비의 산책을 시도한다. 본인이 겪게 되는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한 물음과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안이 아닌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자 작업의 물음표이다. 그리고

30) 진 로버트슨. (2011). 『테마 현대미술 노트(1980년 이후 동시대 미술읽기-무엇을, 왜, 어떻게)』. 문혜진 역. 경기도: 두성북스, p.224.

31) 김현미·강미연·권수현 외 3명 저. (2010). 『친밀한적-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이후, p.277.

32) 앙리 르페브르. (2005). 전계서, p.19.

이러한 물음표 들은 작업 이라는 결과물로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거나 나오게 되는 사유들 역시 연구자가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연구자는 ‘바깥’을 찾는 방법으로 ‘산책하기’라는 방법과 ‘수집하기’라는 방법을 택한다.

3.1 산책하기

“거리를 쏘다니다가 추억에 잠겨 도둑에 빠지곤 하는 산책자는 눈앞에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단순한 지식, 죽은 데이터까지 마치 몸소 경험하거나 직접 체험해본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³³⁾

산책자는 근대가 창조한 환경과 공간인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방식과 경험 구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독일의 문예 학자 발터 벤야민이 제안한 용어이다.³⁴⁾ 이 개념의 출현 배경에는 반드시 근대화와 도시 공간의 형성이라는 사회 변동이 자리한다. 산책자란 도시의 구석 구석을 자유롭게, 자유의지대로 헤매는 자, 다소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충격’을 피하여 한가로이 자신의 내면적 환상에 참여하는 자를 뜻하게 된다.³⁵⁾

본인 역시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를 구석구석 헤매임으로서 자본주의적 삶의 ‘바깥’을 탐구하고 발견하고자 하였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느 사건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비 일상을 찾아내어 그 차이의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업은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영역에 의해 달라진다. 본인에게 있어 일상적인 장소는 도시이다. 도시와 소비 자본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 장소와 풍경이 되었다. 이런 자본주의적 일상 풍경 속에서 관찰자의 시점이 시작된다. 이러한 일상적 풍경에서도 몇 가지 관점에서의 장소가 존재한다. 하나의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고, 발견 된 장소이며, 다른 하나는 발견된 장소(실제로 존재하는)를 또 다른 장소(존재하지 않는)로 변모시킨 장소이다. 이

33) 발터 벤야민. (2008). 『도시의 산책자』.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p.11.

34) 산책자(散策者, Flaneur).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35) 산책자.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러한 장소들은 본인에 의해 산책자의 시점으로 다시 재발견되며 재현되고 재구성 된다.

3.2 수집하기

산책하기를 시작으로 작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수집하기’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사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곧 ‘소비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주로 수집의 대상이 된 것들은, 사진으로 어떤 장면을 찍어 남겨놓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화면을 캡처해 놓기도 하지만, 결국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물들이었다. 이 사물들은 산책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사물들, 예를 들어 도심 속 공원이나 거리에서 발견했던 텐트,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견했던 칼라콘 같은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었다. 수집하는 행위는 곧 소비하는 행위가 되었다. 소비하려는 사물의 품목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의 장바구니에 담아 차례대로 구매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을 하는 행위 역시 소비사회의 구조 속에서 다시 소비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 되었다. 소비사회의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으로서 수집하기를 택하였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은 소비를 하여 소비사회의 구조를 응시하고자 한다. 현대의 일상생활의 소비는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의 명령에 복종되고 유도된다고 보드리야르는 얘기한다.³⁶⁾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기 위해서 사물을 조작하고 소비한다.³⁷⁾ 타인과 자기를 구별 짓는 것은 동시에 차이의 질서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각 개인은 차이의 질서 속에서 다시 질서 그 자체를 재생산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타인과 다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선택들이 차이의 질서를 남게 하는 구조상의 제약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³⁸⁾

36) 장 보드리야르, (1992). 『소비의 사회』. 이상을 역. 서울: 문예출판사. p.55.

37) 장 보드리야르, 전개서, p.81.

38) 장 보드리야르, 상계서, p.81.

IV. 작품 표현 및 분석

본인의 작업에서 장소와 영역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고 수집된 사물들은 모두 본인이 머무르는 일상적 장소 속의 작은 사건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장소와 영역들은 본인에 의해 하나로 이야기 되며 이것은 르페브르가 얘기하는 ‘생동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본에 의하여 상품화되어버린 공간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공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인은 일상적 공간에서 비-일상으로 얘기될 수 있는 순간적 사건의 공간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르페브르는 ‘생동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이 생동 공간은 본인이 작가로서 실천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르페브르는 자기출현의 계기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인이 일상에서 미시적 사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업으로 풀어내가는 방법은 이러한 계기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제도화된 공간 속에 놓여있는 실천적 공간을 찾아다닌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것은 본인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본인은 이것을 ‘바깥’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4.1 영역

4.1.1 사적인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사적인 공간³⁹⁾이란 존재할까? 소위 ‘집(hom

39) 공간(空間, Raum, espace). 2011. 현상학사전. 도서출판 b. 네이버지식백과. www.naver.com. 공간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점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행해지는 장이나 물체의 운동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넓이를 말한다. 공간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체와 그 운동, 인간과 그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공간(空間, space). 2009. 철학사. 중원문화. 네이버지식백과. www.naver.com
물리학적 의미의 공간. 그 공간속의 현상에 대한 법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e)⁴⁰⁾이라는 곳이 사적인 장소로 불리긴 하지만 본인이 겪는 현실세계에서 ‘집’⁴¹⁾이라는 장소는 ‘불안’의 개념으로 읽힌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여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집’은 아늑하고 안정적인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다시 언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야 할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불안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사적인 영역의 출발은 산업 사회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 가내수공업의 영역이었던 집과 가족들이 산업 사회의 출현으로 분리가 되면서 집은 점차 사적인 공간이 되었고 공장으로 일하러나간 남자들이 사라지자 집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공간이 되었다. 본인의 관심은 머무르고 이동해야 했던 장소 즉 집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침범과 그에 따른 불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생활의 역사 5」⁴²⁾에서 앙투안 프로(Antoine Prost, 1933~)에 의하면 사생활의 역사는 결국 사생활의 정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생활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낸 역사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선은 계속해서 변화된다. 또한 사생활은 공적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⁴³⁾

4.1.2 구분되지 않은 영역

본인의 초기 작업은 도시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를 들면 뉴턴 역학은 유우클릿공간을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한다.

40) home 은 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한다. house는 주로 건물 자체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 얘기되는 ‘집’은 home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41) 임대한 ‘집’

42)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생활의 역사>시리즈.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작업을 거쳐 출판된 시리즈로, 책임편집을 맡은 프랑스의 두 역사가를 비롯해 각국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국제적 대가들이 참여하였다.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과 시각을 통해 인간과 역사의 본질 그리고 현재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 시리즈는 ‘인간의 사생활’이란 내밀하고도 표준화되지 않은 주제를 바탕으로,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통사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43) 조르주 뒤비·필립 아리에스. (2006). 『사생활의 역사 5 - 제 1차세계 대전부터 현재까지』. 김기림 역. 서울: 새물결, p.37.

까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었다. 공동 실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시절, 각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공통으로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갔다. 항상 어떠한 공간이 있어왔고 그 공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던 찰나 공동 작업실에서 본인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역의 침범으로 인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본인의 영역 찾기가 시작되었다.

공동 작업실에서 순간순간 내 자리에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마다 생각했다. 여긴 나의 영역인가?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때에만 나의 영역이 되는 걸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도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될까?

정확한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실을 설치해 보았다. 처음 설치한 실부터 마지막 실까지 모든 실을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이 근처에만 다녀가도 그 움직임에 의해 실은 서로 엉키기 시작한다. 실을 설치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 갈 때마다 실은 점점 더 엉켜져 있었다. 내가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 그 자리에 머물다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로서 영역을 표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작업실을 쓰던 한 친구가 자시의 물건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사라졌다. 다음날 이 물건이 놓인 실이 설치된 장소를 보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사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사생활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언제나 사생활은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다.

- 2013 작업노트

전에는 목격하지 못하였던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순간적으로 낯설게 다가온 광경이 있었다. 그것은 도심 속 숲에서의 텐트였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을 자신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머무르기 시작했다. 공적 영역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사적 영역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영역은 순간적으로 만들었다 사라지는 영역이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사적인 장소는 공공장소 속에 만들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장소 속에서 마치 그들이 그들의 집안에서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텐트 속 공간은 공공장소에 나온 그들

에게 사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의 구분 없이 텐트라는 사물 하나로 장소가 탈바꿈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근대 사회에서는 봉건 사회와 다르게 개인의 사적 영역이 국가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고, 정반대로 정치적 권력이 개인의 사적을 보고하고 있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적 영역의 확장이 보장되고 있다.⁴⁴⁾ 이러한 영역의 탈바꿈은 도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캠핑의 개념과는 다르다. 캠핑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행위이다.⁴⁵⁾ 도심 속 캠핑이라는 것 또한 있지만 본인이 발견하게 된 텐트 속 영역은 캠핑처럼 오랜 시간이 아닌 단 몇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그런 영역이었다. 같은 사물이라도, 그리고 같은 사물의 영역이라도 다른 요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시위하는 장소, 즉 노동자들의 투쟁의 장소에서 발견한 텐트였다. 이때 이 텐트는 완벽하게 공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 텐트는 그들의 시위 장소가 되며, 회의실이 되고 그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되기도 한다. 도심 속 산책 중 텐트는 영역을 만들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사적인 사물로 발견됐다. 이러한 사적인 사물은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적 영역을 품고 있는 사물들, 다시 말해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은 도심 곳곳에 발견됐다. 텐트로부터 시작된 사물의 발견은 ‘파라솔’, 그리고 ‘칼라콘’이라는 사물 또한 발견하게 해주었다. 파라솔 역시 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도심 속의 쉼터 역할을 해주는 텐트처럼 여름에 모래사장에서 쉼터의 역할로서 발견된다. 또한 파라솔은 재래시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파라솔은 장사하는 상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준다. 칼라콘은 모든 공사현장에서 발견된다. 도보, 고속도로, 차길, 주택가 등 공사하는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확대는 공공선과 공공재의 축소와 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적 영역은 팽창하지 않고 있고, 또한 팽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적 영역의 존재 없이 사적 영역은 존재할 수 없고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

44) 이흥균. (2006).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p.83.

45) 캠핑. 네이버 국어사전. www.naver.com

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공적 영역을 축소, 파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적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사적 영역이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확대를 지지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46) 이홍균. 전개논문. p.98-99.



<작품 1> Territory
C-프린트, 가변크기 8개, 2012



<작품 2> 텐트

모기장 텐트, 200x120x140cm, 2013



<작품 3> 파라솔
파라솔, 철, 40x155x190cm, 2014



<작품 4> 칼라콘(청)
칼라콘, 접이식매대, 가변설치, 2014



<작품 5> 칼라콘(흰)
칼라콘, 접이식매대, 가변설치, 2014

4.2 존재하지 않는 장소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본인의 기억이 있는 도시에서도 이어졌다. 도시는 끊임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본인이 태어난 이래로 도시는 재개발 중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당연하게 공사 중인 도시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며 살았고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 공사 현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도심 속 공사는 본인에게 있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이었기에 많은 관심이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20년을 살았던 장소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 버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일상은 본인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집을 떠났고, 폐허가 되어 버린 장소를 찾아가 그 재개발 장소, 다시 말해 본인이 알고 있던 장소에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 버리는 때에 본인의 어떤 기억들이 사라져 버릴까 싶은 마음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린 그곳을 열심히 드나들기 시작했다.

인천 서구 가정동. 90년도부터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인천 서구 가정동. 이곳은 ‘청라국제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몇 년간 방치된 비어있는 건물들. 같은 장소에 20년 넘게 살아온 나로서는 동네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인지하게 된 한순간, 동네는 더 이상 예전의 동네가 아니게 되었다. 아마 이 동네에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무신경함에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인지하게된 2012년 9월 이후 갑작스럽게 몇 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던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헐려나갔고 2013년 5월 현재, 대부분의 건물들이 헐렸고 그곳엔 더 이상 비어 있는 장소는 없었다.

- 작업노트 <인천 서구 가정동> 중 2013

<응시> 시리즈 작업은 이때 만들어진 작업이다. 추억이 담겨 있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동안 지각하지

못 하였던 본인의 무관심에 반성과 재개발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동안의 사고에 대한 복잡했던 생각들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응시 시리즈 작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영상과 사진 작업이다. 응시 시리즈 작업에서도 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사적인 영역의 관심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장소로 옮겨 오면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되었다. 본인은 이 비어져 버린 장소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도시 산책과는 다른 기분으로 비어져 버린 도시를 산책하며 그것을 카메라와 영상으로 담았다. 다른 재개발 구역과는 다르게 이곳은 ‘가정동’ 일대가 모두 재개발 지역이 되었다. 재개발 구역을 배회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장소들에는 창문도 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문은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 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현관문을 닫고 걸어 잠그면 우리는 그곳에서 일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문을 닫음으로써 밖과의 연결지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창문은 비슷하지만 다른 역할을 한다. 창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문과 창문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서는 문과 창문의 역할은 더 이상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가 되었다.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 위에 장소를 더 하였다. 본인은 창문과 문이 없이 찍힌 재개발 지역의 장소들을 영상에서 사용하는 편집 방법인 ‘blue boundary’ 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이미지들을 섞어 편집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장소들을 만들어 내었다.



<작품 6> The Vinyl
single channel video, color, 3min10sec, 2012



<작품 7> The second Vinyl
single channel video, color, 2012



<작품 8> candlelight
single channel video, color, 2012



<작품 9> preschool

single channel video, sound, color, 2min5sec, 2012



<작품 10> blue boundary
C프린트, 가변크기, 2013

4.3 욕망의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집이 어디세요?’라는 평범해 보이는 질문은 사람들의 계급적 조건과 가족적 배경, 교육 환경 등을 꿰뚫는 무서운 질문이 되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집’에 사는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집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에는 삶에 대한 이면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⁴⁷⁾ 본인은 이러한 ‘집’이라는 장소와 사적인 영역으로 불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물음을 던져본다.

4.3.1 전단지

찾은 이사를 다니며 서울의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기에 새로운 동네에 다시 새롭게 적응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동네 배회를 자주 하였었다. 이러한 배회는 또 다른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2013년 서울에 있는 은평구 응암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은평구로의 거주지 옮김은 ‘집’이라는 장소에 대해 다시 환기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사 가게 된 은평구 응암동은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동네였다. 산책자의 시점에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은평구 주변 벽에 붙어 있던 전단지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단지들이지만 이 지역 전단지의 내용은 유독 하나의 내용만이 있었다. 그 내용은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평구에서 발견한 전단지들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풀옵션, 입지조건이 좋다는 등의 전단지를 보는 사람들이 즉 은평구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시세가 저렴한 집들을 소개해 놓았다. 전단지는 사람들의 욕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구 원곡동이라는 지역에서 작업할 기회가 생겼다. 낮선 원곡동에서 산

47)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p.18.

책자의 시점으로 배회를 하였다. 배회를 한지 며칠쯤 지나 원곡동에서 응암동과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단지였다. 원곡동에서 발견한 전단지들 역시 은평구에서 발견한 전단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다문화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 살고 있는 장소이다. 특히 원곡 본동 사무소에서 안산역에 이르는 골목길에는 중국, 동남아, 중동 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백여 개의 국제 상점이 밀집되어 있다.⁴⁸⁾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 만큼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이 전단지에 담겨 있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이주 노동자가 되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한국이라는 낯선 장소에 와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단지에서 보여주듯이 일할 수 있는 장소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이었다. 인력 구인을 얘기하고, 자격증 시험을 얘기하는 전단지들은 은평구에서 보았던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전단지들과 같은 시점으로 읽혔다. 이 전단지 역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담고 있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전단지는 자신의 역할을 조용히 하고 있었다. 본인은 은평구와 원곡동 두 장소에서 전단지들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전단지들은 다시 본인의 욕망으로 채워진 전단지로 만들어졌다. 본인의 욕망도 그들(은평구, 원곡동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번 새로운 집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줄 수 있는 영역들(텐트, 파라솔, 의자 등) 혹은 집들이 전단지 안에 채워졌다. 본인이 발견하게 되었던 전단지에서 보인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욕망과 새롭게 본인이 만든 안전한 장소에 대한 전단지의 욕망은 결국 같은 것이었다. 그 전단지들이 붙어있던 장소에 본인의 욕망으로 채워진 전단지들을 다시 덧붙여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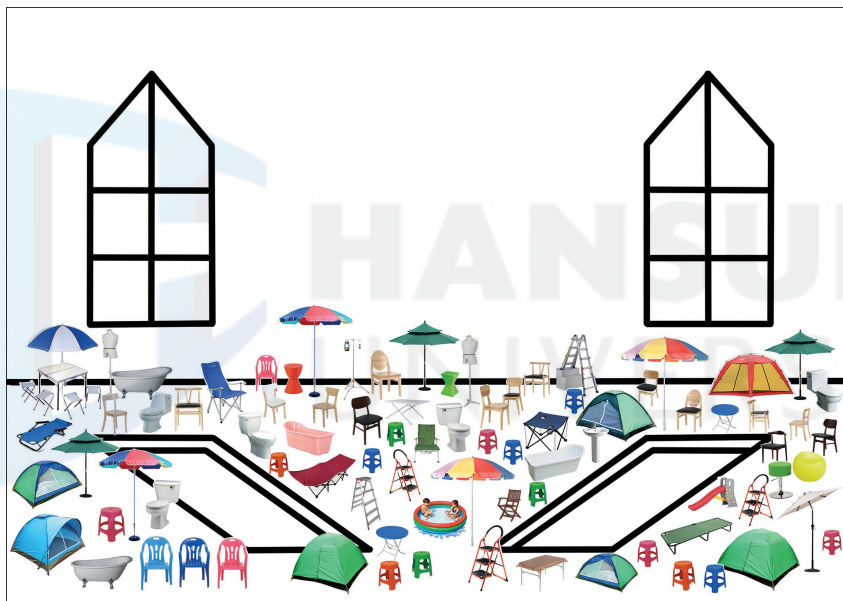
48) 원곡동(元谷洞).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도판 1> 서울시 은평구 전단지



<도판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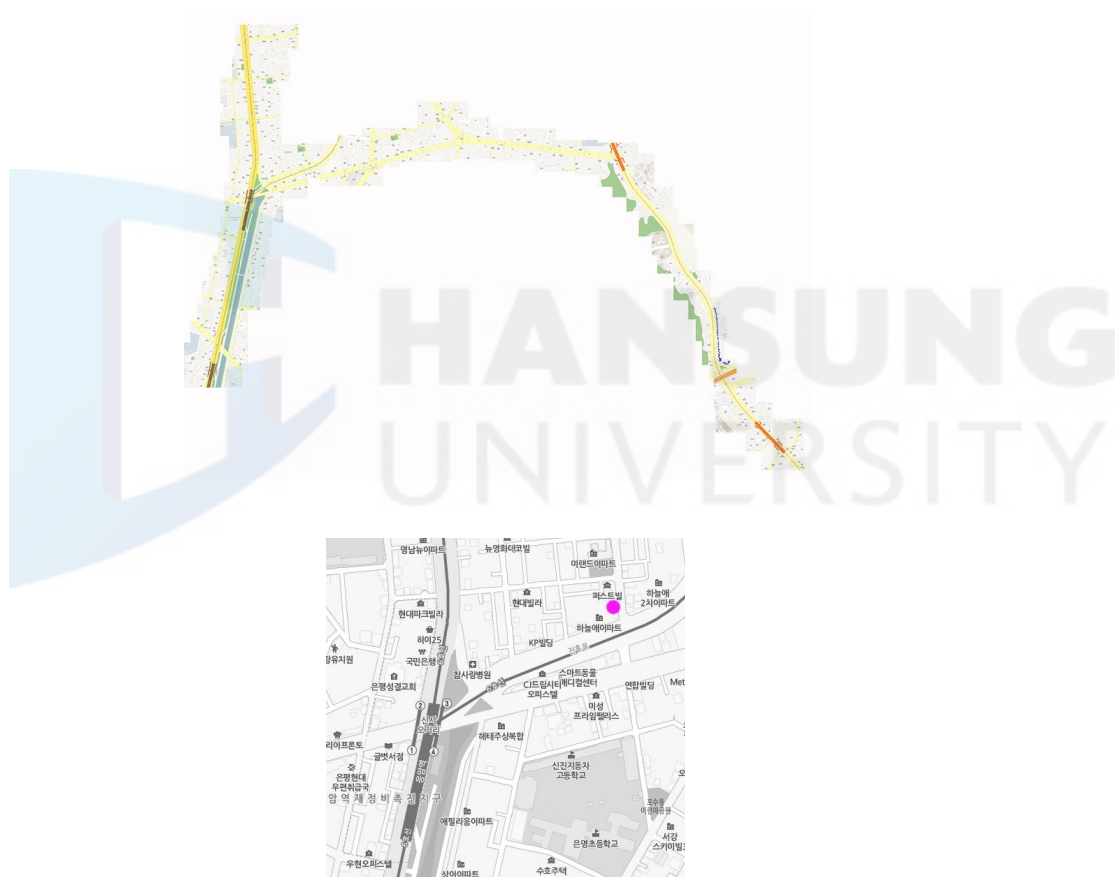
<작품 11> same time, same space
아트지에 인쇄, 29.7x21, 2013



<작품 12> same time, same space
single channel video, color, 25min55sec, 2013

4.3.2 임대문의

전단지 작업을 하며 은평구를 산책다가 흥미로운 지점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 유독 ‘임대문의’라는 손 글씨가 붙어있는 비어있는 장소가 많았다. 변화한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대가 되어 사용되어야 할 공간들이 비어있고 그 자리엔 ‘임대문의’라는 글자만이 붙어 있는 공간들이 유달리 은평구에 많았다. 은평구에서 발견한 ‘임대문의’ 공간들을 시작으로 ‘임대문의’라는 메시지가 붙여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임대문의’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는 장소는 재개발 지역을 묶여 있던 홍제동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졌다.



<도판 3> <임대문의 프로젝트> 지도 (은평구 응암동~홍제동)



<도판 4> <임대문의 프로젝트> 임대문의 수집 사진

<임대문의 프로젝트 계획서>

사건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취지)

‘임대문의’ 공간이 윈도우 갤러리 공간으로 차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용자를 찾지 못해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장소인 ‘임대문의’ 공간을 대안적인 전시 공간으로 차용한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든 결정적 원인이나 기회.(계기)

나는 비교적 전셋값이 저렴하다는 강서구에서 살다가 그와 비슷한 은평구로 이사를 하였다.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전셋값이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들이 전셋값이 저렴한 이유는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아서이다. 이것도 다 옛날이야기다. 월세가 많이 상승하자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 부동산 전셋값이 올랐는데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았던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를 배회한다. 성북구를 배회하고, 중구를 배회하고, 은평구를 배회하고, 서대문구를 배회하고, 강서구를 배회한다. 강남구를 배회한다. 살고 있는 집 근처의 거리를 배회한다.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다. 그 가게들에는 하나같이 ‘임대문의’라는 글자가 프린트된 종이가 붙어있다. 어느 동네에 나 ‘임대문의’ 문구는 흔하게 발견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문의’ 문구 사진을 찍고 다닌다. 그러다 발견한 사실. 어느 동네나 다 있지만 ‘임대문의’에도 차이는 있다. 부동산 시세가 높은 강남구 같은 장소에서는 대부분 빌딩 건물 앞에 ‘임대문의’ 간판이 붙어있다. 빌딩 층별로 ‘임대문의’를 한다. 빌딩 임대문의가 많다. 문의 해보지 않는다면 임대하는 장소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은평구에서는 대부분 단층 건물에 주인이 직접 가게 유리창문 앞에 A4 용지에 프린트된 ‘임대문의’를 붙여놓는다. 주인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그 가게의 상태, 크기 등을 ‘임대문의’라는 글씨가 프린트된 종이가 붙여져 있는 유리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관찰하는 ‘임대문의’에도 차이가 생겼다. 윈도우가 있는, 비어있는 가게 내부가 보이는 ‘임대문의’ 공간을 더 세심하게 관찰한다. 관찰을 하다 보니 윈도우 갤러리를 관람객들이 보는 모습과 ‘임대문의’ 장소를 보는 모습이 비슷하다. 유리창문이 있고, 유리문을 통하여 내부를 관람하고 감상한다.

2013년 초, 강서구에서 은평구로 이사를 하였다. 이 곳에서도 ‘임대’ 장소는 많이 발견되었다. 아니, 내가 보았던 다른 지역들 보다 더 많이 발견하였다. ‘임대문의’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한 장소에서 많게는 4개까지

모여있었고, 발견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또 발견되었다. 걸어 다니면서 발견한, 모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내가 다니는 거리에서 발견된 장소 들이다.

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방법)

첫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장소 찾기.

두 번째. 찾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기.

세 번째. 전시장으로 탈바꿈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기.

네 번째. 선정된 '임대문의' 장소의 주인에게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동의를 구하기.(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무언가가 또 다른 작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임대' 장소 자체를 전시하기.

여섯 번째. '임대문의' 장소가 '전시장'으로 변모하게끔 약간의 개입하기.

(전시 명, 작가 명, 전시날짜)

일곱 번째. 네오룩에 배너올려서 홍보하기.

여덟 번째. 전시장 윈도우에서 내부로 영상 상영하기.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임대문의 프로젝트> 계획서. 2013

4.3.3 이동하는 장소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한 집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은 1년 혹은 2년 한 번씩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를 한다. 흔히 이 상태에 놓은 사람들은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돈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월세 살이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 든다. 본인 역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 하고서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하며 2년마다 이사를 다녔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집에 들어갈 것에 대한 설렘과 낯선 사람이 집을 보러 오는 것에 대한 불안은 항상 동시에 존재 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이 없는 빈집에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 거리게 된다. 그리고 본인 역시도 주인이 부재한 타인의 집을 들락날락 거린다. 이 순간이 오면 집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없는 상태도 아닌 집과 집 없음의 동시적인 상태, 즉 둘 사이의 경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디에서도 편하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어디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늘 머무름이 아닌 간당간당한 상태,⁴⁹⁾ 항상 이동을 예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이 순간 본인은 서울의 이주민이 되는 것이다. 이주 연구자들은 이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집’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포섭/배제의 과정과 끊임 없이 타협, 갈등, 협상하면서 이주민들이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일상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⁵⁰⁾ ‘집’이 있는 지역의 장소는 한 개인의 정체성⁵¹⁾이 만들어 지는 것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한다. 몇몇 지리학자들은 장소가 갖는 구체성에 주목하면서 장소가 경험 되는 방식, 장소를 기반으로 사회적 범주와 사회관계가 구축되는 방식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장소는 단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머무르고 또 이동하는 정체화의 한 국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어떤 장소에 관한 분석은 물리적인 공간에 관한 분석인 것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지점을 분석해야 한다. 사회와 공간적 실천의 경계와 교차 지점을 분석하여야 하는

49) 이민우, 전계서, p.21-22.

50) 이민우, 전계서, p.56.

51)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뜻한다.

것이다.⁵²⁾

안정된 보금자리가 없는 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불안과 징후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병리의 증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현실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실천, 사유와 전망 속에서 드러나지 보여주는 개념이다.⁵³⁾ 따라서 일상적 삶에서 겪는 주거 경험은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이해하며, 특정한 장소로서 주거 공간과 인간의 경험과 주체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근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적 영역의 불균등한 확장의 문제가 있다. 계층 불평등, 임금 인상, 비정규직, 실업, 세금 형평성의 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와 성 불평등, 장애인 불평등, 인종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낙오자를 방치하는 위험의 문제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적 영역의 불균등한 확장의 문제는 중요하다.⁵⁵⁾ 또한 이러한 차별은 토지부족과 투기와 연결되어 있어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주택지대, 고급주택지와 교외 등에 의해 결정적으로 차별화 기능이 작용된다.⁵⁶⁾ 공간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 만들어 졌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자본주의 체계의 진보, 다시 말해 사회적 특권의 원천과 경제적 이윤의 원천으로 변형되는 것을 사회적 진보로 받아들이는 안 될 것이다.⁵⁷⁾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집을 구할 시기가 오면 집 근처의 부동산과 인터넷 공간에 사진 찍힌 방 사진을 게시한다. 인터넷 공간에 올린 본인의 방 사진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처지가 같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본인이 검수하여 올려놓은 방 내부의 사진들을 꼼꼼히 훑어본 뒤 실제로

52) 이민우, 전계서, p.41.

53) 이민우, 전계서, p.76.

54) 이민우, 전계서, p.40.

55) 이흥균, 전계논문, p.84-85.

56) 장 보드리야르, 전계서, p.75.

57) 장 보드리야르, 전계서, p.76.

이 집, 즉 방에 방문하게 된다. 이 순간에는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없는 것은 불안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방을 방 한편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훑어보고 있다. 이러한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는 자신의 집이 아닌 이상 매년 반복되어 질 것이다.





<작품 13> 카페트
카페트, 침핀, 150x150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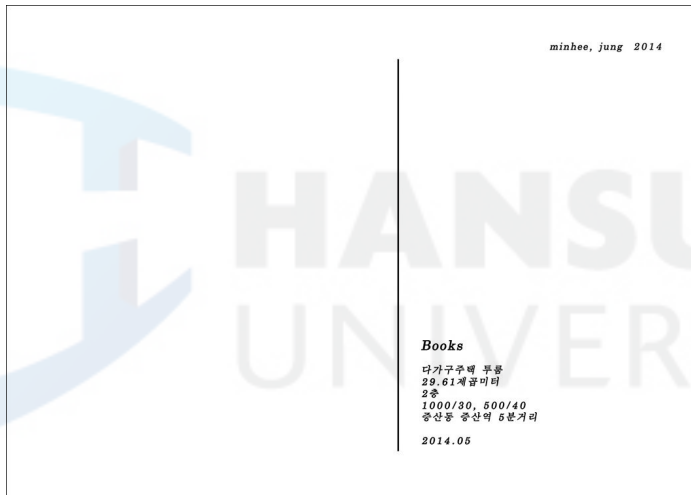
<작품 14> 303호
 피그먼트 프린트, 86.8x61.8cm, 2014



<작품 15> 303호
 피그먼트 프린트, 86.8x61.8cm, 2014



<앞>



<뒤>

<작품16 > 어떤 장소(Books)
 종이에 인쇄, 10.5x14.8cm, 2014

V. 결 론

본인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일상 속에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물음을 지루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미시적 사건들을 찾아 전개하였다.

일상성을 연구했던 철학자인 르페브르의 사유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일상의 공간이란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전유된 공간,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있어 기술문명과 소비적 특성에 의해 끊임없이 불만과 불안의 상태에 놓여있는 소외의 공간임을 논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공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도시를 해석의 공간으로 삼았던 벤야민의 사유 방법인 ‘산책하기’와 보드리야르의 소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작업에 대한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수집하기’는 다시 ‘소비하기’로 예측 되는데, 수집에 대한 논의는 곧 소비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 속에서 본인은 사적인 영역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본인 자신의 영역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해 탐구하였고, 인천 서구 가정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작업했던 ‘응시’시리즈 작업과, ‘same time, same space’와 같은 작업에서 전단지를 발견하고 비어있는 임대공간의 발견이 결국 사회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었음을 작업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발견하게 된 공간들, 장소들에서 본인과 관계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읽고 해석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묻히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곧 작업의 결과물로 나타났고 본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루한 듯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은 사회적 위치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현대성의 이해 역시 일상성의 인식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은 사회를 알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일상을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개인은 구조적인 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현미·강미연 외 4명저. (2010). 『친밀한 적-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이후.
- 미셸 마페줄리·앙리 르페브르 (2010).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고영삼 외 1명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발터 벤야민. (2008). 『도시의 산책자』.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 앙리 르페브르.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 기파랑.
- 앙리 르페브르. (2011). 『공간의 생산』. 양연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
- 장 보드리야르. (1992). 『소비의 사회』. 이상울 역. 서울: 문예출판사.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개념 쟁점과 대안』.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 조르주 뒤비·필립 아리에스. (2006). 『사생활의 역사 5 -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김기림 역. 서울: 새물결.
- 진 로버트슨. (2011). 『테마 현대미술 노트(1980년 이후 동시대 미술읽기-무엇을, 왜, 어떻게)』. 문혜진 역. 경기도: 두성북스.

2. 참고논문

- 로브 쉴즈·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사회. 제 14호.

- 장세룡. (2005).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 문화이론적 접근-』.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25권.
- 이지희. (2009).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에 대한 담론적 연구 -196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 이홍균. (2006). 『사적 영역의 팽창에 의한 공적 영역의 파괴』. 현상과 인식.



ABSTRACT

A place in a daily routine, which is found by strolling and
collection : Primarily based on the author's art works

Jung, Min-Hee
Contemporary Painting
Master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theoretical background primarily for art works which are produced from 2012 to 2014. My art work is started at the moment when a routine place is coming out as an unfamiliar thing. Since I have usually been doing such works moving around here and there, my art works are believed to be started from such places at the moment when once-a-routine-place becomes unfamiliar. In modern society, i frequently come to encounter environments which are not so much unfamiliar even if I relocate my region and place for my work. As such places are made under consumption structure of capitalism, they are familiar to me although things that I encountered are unfamiliar. I discover something familiar in unfamiliar city and such thing soon becomes a daily routine again. Small incidents which are seen by microscopic point of view

at a place which became a daily routine again become motivations for my art works.

Chapter 2 looks into the aspect of daily life and modern aspect mentioned by Henri Lefebvre (1901~1991) who is a French Marxism socialist, and also explores ideology for places which became social spaces and describes how such places of daily routine are related to my art work researches.

Chapter 3 describes how to deploy art works. I deploy my works discovering incidents in daily routines and its processes are achieved by 'Strolling' and 'Collecting' and I intend to describe 'Strolling', one of methods to discover incidents in daily life, through 'Stroller' that was conceptualized by German literature scholar, Walter Benjamin (1892~1940) In other words, I intend to tell stories as to how living as a member of society and an artist in social networks is affected and what attitude I took for such relations through procedures to research my art works. Disclosing things I encounter in society where daily life is repeated every time and how those could be art and how such things can change life is purpose of this paper.

【keywords】 daily life, spaced, strolling, collection